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네오닐라 순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주교, 성 마르키아
노스 사제

제 6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신현 축일 제 2응송 / 예식서 302
- 제 6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신현 축일 찬양송 / 155, B 125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 155, B 127
- 사도경 : 에페소 4:7~13 / 158, 봉독
서 48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 158, B 150
- 신현 축일 성모송 / 157, B 129
- 신현 축일 영성체송 / 157, B 129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네오닐라 순교자

카파도키아의 여인이었던 네오닐라(2세기)는 자신의 세쌍둥이 손자들 벵시포스, 엘라시포스, 메시포스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인은 이상숭배자들의 축일에 세쌍둥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아주 긍정적이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세쌍둥이

형제들은 이상숭배자들에게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네오닐라 성인은 세쌍둥이 형제들과 같이 1월 16일에 축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로 그녀의 자식들과 또 그 손자들인 젊은 이들의 고결함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참 행복의 조건

“대통령과 당신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여론조사에서 물었던 설문입니다. 응답자의 79.5%가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많이 가졌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의 무한한 책임이 워낙 막중하기에 소소한 행복감에 젖을 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웃음 가득한 얼굴로 즐거워하지만 사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실속 있게 사는 것 같아도 늘 허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덕분에 삶의 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외롭고, 성취감 속에서도 솔직한 내 모습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다운 행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과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 빠져서 살아온 것이 혹시 그동안의 우리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아 닌데'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떠밀려가면서 허덕거렸던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상으로 그것이 정말 참 행복인 양 여기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고 쾌락이었지 참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동안 소원했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참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을 찾는 성공 비결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14:6)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올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10)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의 기도요청과 우리가 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늦추어져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생활이 시험대에 오르는 또 다른 순간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또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

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대신에 변함없이 그분과 친교를 나누길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든지 또는 안 이루어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끈기와 지속성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 쉽게 지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무엇인가가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면 하느님은 곧바로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간청이 명백하게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경우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라고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실패는 실제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게 유익한 영적인 것을 간청하는데 왜 저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요청이 아니거나, 또는 아직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보다도 훨씬 깊고 드높으신 하느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의 간청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공고

2021년 1월 19일(화) 제 17회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성서공부 시청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가르치시는 베드로 1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한국정교회 유튜브에 매주 월요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성서공부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정교회 한국대교구 홈페이지에 올린 「하느님의 외면과 코로나19라는 “하늘의 징계”」라는 글을 통해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실시간 예배 중계를 위한 카메라 구입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더 좋은 화질과 성능의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마리아 포티우 교우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셨습니다. 신자분들께서도 이전보다 더 좋은 화질로 예배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포티우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 신자총회 공고

2021년 1월 10일 주일에 신자총회가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21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논의할 것입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신도총회 소집안내

2021년 1월 10일 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제 37 회기 성 바울로 성당 신도총회가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회의 안건은

1. 2020년도 사목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2. 2021년도 사목 사업계획 및 회계예산.
3. 기타.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신자총회 공고

2021년 1월 10일 주일에 신자총회가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21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할 것입니다.